참 수행자를 찾아서

(대회 및 사례자들과의 즉문즉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 불교대학) 도안·여명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055)633-6555 / H.P 010-3466-9991

-. 절망(지옥)에서 희망(극락, 천당)으로

-. 바른 정법(경전)으로 행할 때 분명 가피(기적)는 있다.

-. 연일 소문이 무성한 저잣거리에 나가보면 하루 종일 말 잘하는 앵무새(입보살)들과 잡귀(사주, 철학, 삼재풀이 및 기도, 인등, 산신, 성지순례, 물고기 방생, 무슨 영험도량, 신통도량, 부적 등등)에 능한 이들 외에 참 수행자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또 세계○○대회와 공영 방송에서는 스타급○○ 등이 야단법석(즉문즉설)을 할 때 여기에 조현병 환우가 있다면 어찌할 것인지 물으니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정신병원에 보내어 약물치료와 아울러 참회를 시켜야 한다고...이건 세속에 있는 이들의 할 말이지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이가 할 말이 아니다.

이미 정신을 잃어 버렸거나, 정신을 놓아버렸거나, 혼미한 이는 정상인이 아닌데 참회라니 그들의 말을 알아 듣겠는가?

부처님, 부처님 당시 수행을 근본으로 했던 그 많던 참수행자(아라한)는 어디에 갔는지…또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환우(조현병, 백혈병, 말기암환자,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찌 합니까?

【사례 : 어느 기독인의 절규 】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사는 이○○(33세)입니다. 제가 말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원래는 말하는 것보다 경청하고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도 제가 말을 해야 할 때와 제가 경험한 것을 알려야 할 때는 당당하게 말하는 편입니다. 오늘 지면을 빌리게 된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사례를 알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남긴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짜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편지에서 와닿는 구절이 있어 알리고자 합니다.

"3천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 주고, 3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 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 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해 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고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글에서 돈보다는 생명이 우선이며, 생명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살려준들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을까요?

큰스님께서 환우들을 고치는 능력을 과시하려 했다면 아무나 다 고쳐주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돈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하는 사람에게는 살 기회를 주지 않기도 합니다.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대가 없이 베풀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병을 고친 것에 대해 이야기 하실 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친다가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바른 수행하고 실천하지 않았을 뿐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이야기 하셨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가끔 생각날 때마다 곱씹어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자로서의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스님처럼 하지 못할 뿐이고 결국에는 이 말을 듣고도 실천과 수행을 하려고 마음먹는 것이 아닌 그저 또 스님께 의지하며 쉬운 길을 가려고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스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조금씩 깨닫는 과정일 뿐 무언가를 이뤄내고 체험했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큰스님을 만남으로써 제 삶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사소한 것에도 더 행복해하고 고마워 할 줄 알게 되었으며, 모든일에 대해 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받은 것에 대해 잊지 않으려 노력 중이며 계속해서 갚아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큰스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일은 3년 전 결혼 준비했던 때에 시어머님이 기독인으로 평생을 누워지내며 원인 모를 심장 두근거림과 숨이 잘 안 쉬어진다며 유언 남기듯 저에게 자기가 없어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라는 전화를 받고 놀란 마음에 엄마에게 부탁드려 스님이 기도해 주셨고 시어머님이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기독교)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님의 병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25~6년동안 불안증세와 불면증, 각종 원인 모를 문제들을 겪었으며 남편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으며 스님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유전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달도 안된 제 딸에게도 유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님의 지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마음을 접게 된 계기는 아이를 가지려 마음 먹었던 날 이후부터입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엄마는 종교에 대해 강요하신 적이 없고 그저 종교는 믿는 것이 아니다. 절에 다니라는 말도 하지 않을거다. 무신론자로 살아라 라는 말만 해주셨습니다. 큰스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이제야 무신론자로 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엄마와 같이 대형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에게 이러한 체험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목사가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어릴 때 자주 아프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때는 저와 오빠는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식이었는데, 오래전 지인의 소개로 큰스님을 만나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엄마가 만약 큰스님을 만나지 못하여 그때 돌아가셨더라면 저와 오빠는 어찌 살았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저희 외삼촌도 조현병으로 정신병동(인천 8년) 생활을 하던 도중 현대00병원(서울)으로부터 설암 판정을 받게 되자, 조현병에다 설암까지 겹치자 정신병동에서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빨리 데려가라고... 엄마는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 스님께 상담을 하자 스님이 데리고 오라고 하여 기도후 틈만나면 밥값한다며 마당을 쓸었습니다. 우리 외삼촌도 독실한 기독인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6월에 계획 임신을 준비했고, 7월 절에 다녀간 이후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기간 중에 별 탈 없이 지냈으며, 입덧도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한 임산부는 처음 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1월 출산 2달 전에 마당을 쓸러 절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절에 왔는데 출산 2달 전임에도 몸이 힘들지 않고 절에 있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출산하던 날 엄마가 출산 당일 병원에 오셔서 제 손목에 염주를 채워주고 30분후 분만 시작하겠다는 의사의 말이 들려왔고, 분만 시작한 지 5분만에 아이를 자연분만했습니다

제게는 이 모든 과정이 감히 우연이 아닌 스님의 신통 법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후 1달도 되지 않던 날 저희 딸 기도차 스님이 직접 서울까지 올라와 주셨습니다. 다녀 가신 이후로 아이는 더 건강하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 기도 받았으니 이제 끝이야 라는 생각이 아닌 시댁도 우리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지금처럼 건강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식이자 유명한 00큰스님께서 사부대중 앞에 법문 시 나는 수행 결과인 수행력(법력)이 없어 환우를 만나거나 그 멀리서 찾아오면 나의 수행력 부재로 말로 위로하거나 외면할 수 밖에 없었다라며 참회와 더불어 평생을 두고두고 마음의 짐이었다고 하셨다. 오늘 큰스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는 두고두고 새겨볼 일이다. 나무관세음보살

■ **대회 일시 : 2024년 11월 3일 10:00~**

■ **참가 자격**

종파를 떠나 바른 수행 끝에 득한 법력(수행력)으로 조현병, 말기암, 전이된 암, 백혈병, 희귀병 등 완치 가능한 수행자

■ **참가할 수 없는 자**

비불교적인 것(사주, 삼재, 인등, 부적, 사업성취, 재수불공), 물고기 방생, 성지순례, 월급쟁이 공양주, 술, 담배, 화려한 불상, 건축 불사, 만년 위패, 평생 위패, 우담바라, ○○장 등 등은 일체 참여할 수 없음

■ 잡귀 및 비불교적인 것은 여러 차례 지면을 통해 알렸으니 참조 바랍니다.

■ 기도시 ○○○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신체를 압박하는 행위, 침술, 약 처방, 식이요법 등은 사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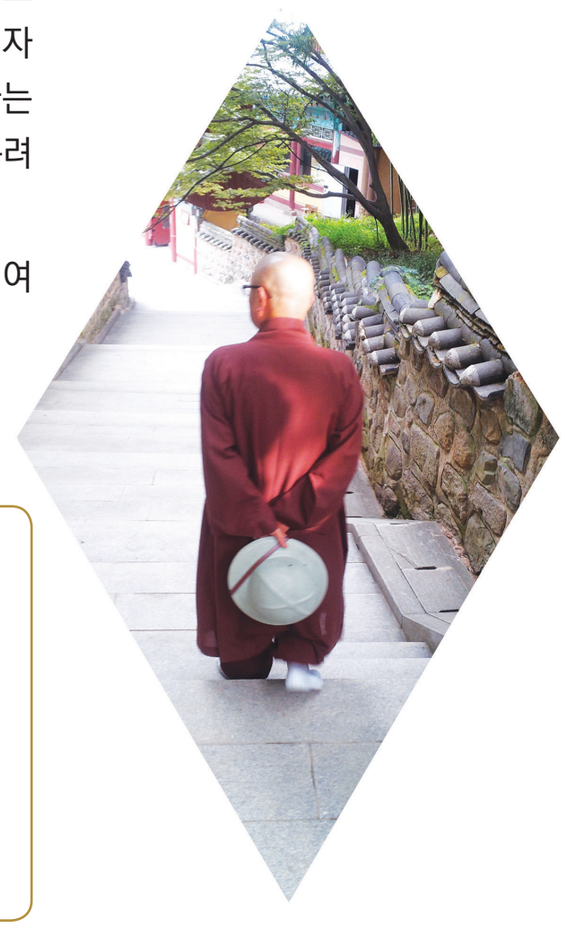
■ 기도 완결자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 기도시간은 20분 내로 함. (2회까지 허용)

■ **결과 검증** : 조현병은 즉시, 나머지 환우는 10일 후 병원진단서(30% 이상 완치 확인)

※ 불자 여러분 말세에 바른 불교 중흥을 위하여 방송스타 성직자 유튜브 성직자, 신통방통하다는 이들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양 준비 관계로 미리 참석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사례자 연락처

010-3466-9991 (김00)

010-4807-6932 (박00)

010-5699-3173 (박00)

010-9633-7158 (조00)

010-9108-5819 (김00)

*본 내용은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